



이화 의학교육 소식지

Ewha Medical Education Newsletter

이화의대 사명선언문(Mission Statement) 이화의대 교육목표 기독교적 진선미의 교육이념을 바탕으로 국가와 인류사회의 발전에 공헌하는 보건의료분야의 탁월한 여성지도자 양성

이화의학교육센터(EMEC) 개소

미래의학을 주도할 의사·의과학자 양성을 위한
도약의 기틀 마련



▲ 지난 5월 10일 의학관(마곡)에서 이화의학교육센터 개소식이 개최되었다.
지난 5월 10일 '이화의학교육센터(초대 센터장 편육범) 개소식'이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이화의학교육센터(Ewha Medical Education Center; EMEC)는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을 마련하고 훌륭한 융복합 미래 인재를 양성하는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의 교육이념 실천을 조직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개소식은 의학관(마곡) 계림홀에서 진행되었으며 △축사(유경하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기념사(하은희 의과대학장), △환영사(편육범 이화의학교육센터장), △이화의학교육센터(정소미 이화의학교육센터 특임교수) 소개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화의대는 1887년 한국 최초의 여성병원 보구녀관을 뿌리로 하여,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의사 박에스더를 비롯한 수많은 여성 의학자와 의사를 배출해왔다. 이화의대는 '기독교적 진선미의 교육이념'을 바탕으로 국가와 인류사회의 발전에 공헌하는 보건의료분야의 탁월한 여성지도자 양성이라는 사명 아래, '미래의학을 주도하고 세상과 공감하는 의사와 의과학자 양성'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교육해오고 있다. 이러한 비전 실현을 위하여 이화의학교육센터는 EUMC LCT-QC (Ewha University Medical College, Learning/ Curriculum/ Teaching - Quality management/ Counseling) 모델을 구축하고 교육지원을 해나갈 것이다. EUMC LCT-QC는 이화 학생 학습역량 강화(L), 이화 의학 교육과정 고도화(C), 이화 교수역량 강화(T), 이화 의학 교육과정 질 관리 체계 구축(Q), 이화의대 상담 체계 고도화(C)의 5개의 중점 과제와 12개의 세부 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이를 기반 한 이화 의학교육센터가 우리나라 최고의 의학 교육 전문기관으로 거듭나, 의학 인재 육성의 산실이 되기를 기대한다.

이화의학교육센터 (Ewha Medical Education Center: EMEC) 소개

비전 국내 최고 수준의 의학교육 전문 기구를 지향한다

미션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의 의학교육 관련 제반 업무, 즉 교육과정 연구 개발, 실행, 평가를 담당

주요업무

- 의학교육과 관련된 모든 분야의 연구, 교육, 개발, 자문
- 기초/임상을 포함한 모든 교육과정에 대한 지원과 교수법, 학습방법, 학습상담, 학생역량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 및 운영
- 국내·외 의학교육 관련 학술 활동과 의학교육 지속발전 방안 수립 및 운영

구성원

구분	성명	담당직무
센터장	편육범	센터 업무 총괄
부센터장	태정현	센터 관리 및 운영
부센터장	이희성	센터 관리 및 운영
특임교수	정소미	기획 및 연구
연구원	고아라	CBT 및 연구 지원
직원	배현지	교수학습지원
직원	홍가영	교수학습지원
간호사	김선희	CPX, OSCE 지원(EMSC)

운영위원회

구분	성명	직위
위원장	하은희	의과대학장
위원	편육범	교육부학장/이화의학교육센터장
위원	정성애	교무부학장
위원	태정현	이화의학교육부센터장
위원	권복규	의학교육학교실 주임교수
위원	양현종	전임 의학교육부장
위원	이지수	전임 의학교육부장
위원	최윤희	의예과장
위원	천윤필	의과대학 행정팀장
위원	정소미	이화의학교육센터 특임교수
배석	고아라	이화의학교육센터 연구원

이화의학교육센터는 의학관(마곡) 326호에 있습니다.
교육 지원이 필요하시거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02-6986-6012로 전화주세요.
이화의학교육센터의 문은 언제나 열려있습니다!

개소식



“Ewha Medical Education Center(EMEC) as a Cornerstone” 국내 최고를 향한 이화의학교육센터 설립을 축하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의과대학 학장 하은희입니다.

드디어 이화의대에 이화의학교육센터를 열게 되었습니다. 진심으로 자축합니다. 저는 오랫동안 우리 의대에 의학교육을 지원하는 센터가 설립되는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언제나 꿈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오늘 다시 이화의학교육센터가 국내 최고 수준의 의학교육 전문 기구로 나아가는 꿈을 꾸니다.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늦었다고 생각할 때 가장 빠르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화의학교육센터는, 우리 대학의 의학교육과 관련된 모든 분야의 연구, 개발, 그리고 자문 역할을 담당하고, 교육과정에 대한 지원과 교수법, 학습방법 및 상담, 학생역량 개발을 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국내·외 의학교육 관련 학술 연구 활동을 수행하고 우리 의학교육의 지속적인 발전을 견인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놓은 이 코너스톤은 국내 최고 수준의 의학교육을 목표로 하는 우리가 지을 집의 토목이 돌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 함께 이 거대한 집을 지어나가야 합니다. 이 집을 짓기 위해서는 이화의대의 사명과 비전하에 기초의학, 임상의학, CPX, OSCE, PBL, 국가고시문제 출제, 교육과정개발, 강의법, 평가법, 혁신적 교육기법의 도입, 학생 맞춤형 시스템 구축 등 정말 많은 자원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절대 혼자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함께 해 주실 것을 믿고, 꼭 함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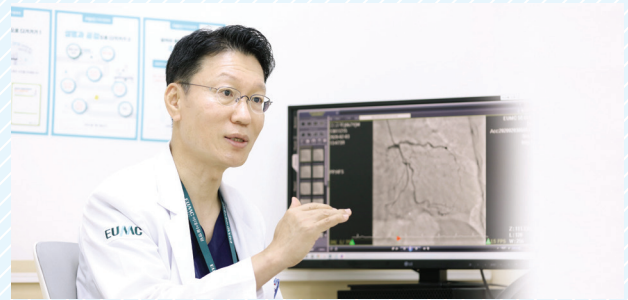
그래서 우리 모두는, 앞으로 이화의학교육센터가

- 첫째**, 이화의대의 사명과 비전 실천을 위한 의학교육의 토대를 형성하고,
- 둘째**, 미래의학을 주도할 융복합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 셋째**, 이화의대 의학교육의 성찰과 발전을 위한 의학교육 연구 수행을 통해 이화의대 의학교육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이화의학교육센터가 우리나라 최고의 의학교육 전문기관으로 거듭나, 의학 인재 육성의 산실이 되어 멋지게 완성된 집에 캡스톤(Capstone)을 올리는 그 날까지 우리 모두 함께하기를 소망하며, 항상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의과대학 학장 하은희

이화 의학교육의 새로운 컨트롤 타워, 이화의학교육센터의 설립을 알리며



안녕하십니까? 이화의학교육센터 센터장 편옥범입니다.

2022년 5월, 보구녀관의 설립자이신 윌리엄 스크랜튼 선교사가 조선에 첫 발을 디디셨던 그 5월, 이화의학교육센터의 설립을 알리게 되어 더욱 뜻 깊습니다. 우리 이화의대는 135년을 이어온 교육의 역사가 의대 내에 복원된 보구녀관과 함께 마곡 캠퍼스 시대를 열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최고의 시설을 갖추고, 최고의 교육을 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 결과, 2014년, 2020년 의학교육인증평가에서 최상 등급인 6년 인증을 획득하는 쾌거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화의학교육센터를 통해 ‘최상’에 머물지 않고 ‘유일무이’한 이화의대만의 교육을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의학교육과 관련된 모든 영역을 포함한 EUMC LCT-QC모형을 구축하고, 그에 따라 전방위적인 교육지원을 해나갈 것입니다.

첫째, Learning 맞춤형 학습 지원을 하겠습니다. 모델의 전체를 아울러, 학생의 학습을 가장 앞에 두고 최우선시 하겠습니다. 학생들 개개인의 학습에 주의를 기울이고 맞춤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을 확장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Curriculum 교육과정을 상시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사회는 급변하고 있고 우리의 학생 또한 변화하고 있습니다. 유연하고 민첩하게 다가오는 변화에 대응해나갈 수 있도록 상시적으로 교육과정을 살피겠습니다.

셋째, Teaching 교수님들의 교육 참여를 촉진하겠습니다. 보다 많은 교수님들께서 의학교육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우리 센터가 촉진제의 역할을 하겠습니다. 교수역량을 강화하고, 의학교육에 대해 고민하실 수 있는 장을 열어드리겠습니다.

넷째, Quality management 데이터 기반으로 교육의 질을 관리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의 결과가 데이터로써 누적되고, 그에 따라 교육적 의사결정 할 수 있도록 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보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교육적 의사결정의 틀을 구축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Counseling 구성원의 유대 강화를 촉진하겠습니다. 교수와 제자로서의 인연에서, 동료 의사로서 끈끈한 유대를 이어갈 수 있도록 공감과 소통의 문화를 만들어가겠습니다.

135년의 자랑스러운 이화의대의 역사는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다시, 우리는 새로운 출발선에 함께 서 있습니다. 한 발, 한 발, 정성을 다해 학생들을 위하여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화의학교육센터 센터장 편옥범

의학교육 소식



정인숙 동문 초청, ESAC 특강 개최



▲ 지난 5월 16일 의학관(마곡)에서 ESAC 강좌가 개최되었다.

의과대학(학장 하은희)은 Ewha Social Active Communication (ESAC)의 일환으로 정인숙 동문의 특강을 의과대학 의학관(마곡) 계림홀에서 5월 16일(월) 개최했다. 의과대학은 매년 의료인으로서의 전문성과 대외의사소통 능력 제고를 위해 의료계 및 사회 각 분야 인사를 초청하여 ESAC 특강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특강의 연사인 정인숙 동문은 의화의대 37회 졸업생으로, Temple University Hospital (Residency, Internal Medicine), University of Maryland Program (Fellowship, Infectious Disease)을 거쳐 현재 Virginia, Inova Fairfax Hospital에서 내과전문의로 활동하고 있다. '미국에서 의사하기'를 주제로 진행된 이번 특강은 학생 대표 2인(본2 신정민, 백승현)의 질문에 정인숙 동문이 답하는 대담형태로 이루어졌다. 미국행의 결심 계기, 미국 병원에서의 적응과 차별경험, 업무 수행의 어려움과 극복경험, 앞으로의 계획과 꿈 등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었다. 정인숙 동문은 "무엇이든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언제나 길이 열릴 것이다"라고 말했다. "기도하고 도전하라"는 격려를 전하며 열띤 강의를 마쳤다. 이날 특강에서는 290여명의 의과대학 재학생(비대면 포함)과 유경하 의무부총장 겸 이화의료원장, 하은희 의과대학장, 박영미 기획부장, 윤혜전 기획차장이 참석하였으며, 의과대학 37회 졸업생들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주었다.



'2022학년도 첫 번째 신입교원 워크숍' 개최

이화의대 발전방향, 학사·인사제도, 이화의대 교육과정, 변화된 의사 국가고시 등 안내



▲ 지난 5월 10일 의학관(마곡)에서 신입교원 워크숍이 개최되었다.

ESAC 특강 참여 소감

항상 긍정적으로 나 자신을 믿는 힘

남들이 쉽게 가지 않는 길을 낯선 환경에서 개척하기 쉽지 않았을 텐데, 두려움보다는 스스로에 대한 믿음으로 이겨내신 교수님의 마음가짐에 무척이나 감동받았습니다. 당장 1년 뒤 본과 3학년 실습, 그다음 해 국시, 그리고 악명 높다는 인턴 생활까지 막막하기만 했는데, 교수님께서 강연 때 보여주신 생각과 삶에 대한 태도라면 무서울 것이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창해 보이지 않아도 남들이 아닌 나부터 나 스스로를 믿고 결정을 내려서 밀고 나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항상 긍정적이고 주변을 사랑하시는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도 바쁜 환경과 많은 할 일들 사이에서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잃어가고 있다고 느끼던 중이었는데, 강연을 통해 어떤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유지하면 무엇을 하더라도 성공할 수 있다고 느꼈습니다. 더불어 후배들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뜻깊은 강연을 해주셨다고 느꼈습니다.

〈본2 백승현〉

성장하고 베푸는 삶

선배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미국에서 의사 생활을 하는 것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사라지는 느낌을 받았고, 말씀해 주시는 경험담을 들으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미국에서의 의사 생활을 그려 볼 수 있었습니다. 그보다도 어떤 일이든 원하고, 최선을 다하면 된다는 말씀이 많이 인상 깊었습니다. 또한 선배님께서 인턴 시절 환자를 보실 때마다 이에 대한 논문을 꼭 하루에 하나씩은 읽으셨다는 말씀을 듣고, '나는 지금 내가 바라는 것을 위해 얼마나 열심히 살고 있나' 하는 생각이 들며,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다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받은 것을 베풀어야 한다는 말씀을 들으며, 저 또한 본받아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였습니다. 지금 학교로부터 많은 것을 받고 있는 학생으로서, 이런 기회를 얻게 된 것에 감사함을 느끼고, 잊지 않고 나중에 제가 더 성장하게 되었을 때 꼭 생물이 끊기지 않도록 학교에 보답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좋은 강연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어 많이 감사했고, 저도 나중에 후배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의사가 될 수 있도록 더 많이 노력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좋은 강의를 해 주신 정인숙 선배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본2 신정민〉

우리대학은 신입교원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지난 5월 10일 이화의학교육센터 주관으로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의과대학 교육 및 교무행정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높이고 의과대학 교수로서 책무성을 제고하고 교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워크숍엔 정민경 교수, 이정원 교수, 홍경숙 교수, 송승환 교수 등 신규임용 전임교원 7명이 참석하였다. 워크숍에서는 ▲의과대학 발전방향(하은희 의과대학장), ▲의과학연구소 소개(정성철 의과학연구소장), ▲학사 안내 및 교원종합평가(정성에 교무부학장, 정혜선 교무부차장), ▲의과대학 교육과정 소개(양현중 이화의학교육센터 운영위원), ▲CPX-의사 국가고시 실기 변경(권형주 CPX위원장), ▲CBT 소개 및 시험문항 출제(이혜진 임상교무부장)를 주요 내용으로 다뤘다. 이날 참석한 하은희 의과대학장은 "이화대의 새로운 인재상인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는 창의력과 공감능력으로 미래의학을 선도하는 의사·의학학자 양성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이화 의학교육에 대한 소회

의학교육학교실 권복규 주임교수



이화의대의 사명은 “기독교적 진선미의 교육이념을 바탕으로 국가와 인류사회의 발전에 공헌하는 보건의료분야의 탁월한 여성 지도자 양성”이다. 이는 대학원 교육까지를 다 포괄하지만, 기본의학교육의 목표는 의사로서의 기본적인 역량과 자질을 갖춘 여성 의사를 양성하는 것이다. 사실 21세기에 여자의과대학이 존재해야 하느냐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들이 있다. 원래 미국에서 여자의과대학(Women's Medical School)은 여학생에게 의학의 문호를 열어주지 않았던 19세기 중반 이후의 역사적 배경이 있었고, 존스홉킨스 의대를 필두로 19세기 후반부터 의과대학이 여학생에게 개방되면서 대부분의 여자의과대학들이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성 의학교육기관의 필요성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할 수 있을까? 세상에는 수많은 여성들이 사회적, 직업적 차별을 겪고 있는 나라들이 여전히 많기 때문에 이화의대의 사명도 인류사적인 의미가 있을 것이다. 또한 성인지의학과 펠테크 기업의 등장 등 여성의 고유성과 특수성을 인정하는 의학과 산업의 새로운 흐름은 여성 의학교육기관의 장래에도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준다. 그러므로 이화의대는 기본에 충실한 의학교육을 바탕으로 하여 기독교와 여성이라는 본질적 사명을 염두에 두고 우리나라와 세계가 원하는 의료분야의 여성 지도자들을 양성해야 한다. 건전한 임상추론 능력, 우수한 임상술기 능력, 원활한 의사소통 능력, 기독교적 돌봄과 사랑의 정신, 그리고 기독교적 사랑에 입각한 여성 의학전문직업성의 고취 및 윤리 역량, 진취적인 탐구 정신 등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세부적인 역량들이다. 이러한 역량들은 비록 세상이 변했다고 해도 여전히 가치가 있을 것이며, 이화의대를 졸업하지 않은 다른 여성 의료인에게도 의미 있는 모습으로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의학교육 자체가 커다란 변화를 겪고 있는 지금,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변화에 부화뇌동하기 보다는 초심으로 돌아가서 우리의 본래 사명이 무엇이며, 이를 현 세대에서 구현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를 찾아나서는 것이라 생각한다. 그래야만 의학교육의 발전도 기약할 수 있을 것이다.

이화의학교육센터와 의학교육학교실이 함께 주최하는 의학교육 세미나 개최

의과대학, 이대서울병원, 이대목동병원 실시간 화상 연결
“의학교육 최신 트렌드 공유의 장 마련”



이화의학교육센터(센터장 편육범)와 의학교육학교실(주임교수 권복규)이 함께 주최하는 의학교육 세미나가 5월 26일(목) 오후 4시 의학관(마곡) 105호에서 개최되었다. 의학교육 세미나는 의학교육의 최신 트렌드를 공유하고, 우리 의학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함께 고찰하고 논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22학년도 첫 번째 세미나인 이번 세미나는 △ 의학교육에서 '3D 아틀라스' 활용 사례 (신정아 교수, 해부학교실), △ 의학교육이란 무엇인가? (권복규 교수, 의학교육학교실), △ 2022년 '한국의학교육학회(KEMC)' 주요 내용 (정소미 교수, 이화의학교육센터)을 주제로 진행되었다. 이번 세미나에는 실시간 온라인 중계를 통하여 의과대학, 서울병원, 목동병원을 연결하여 진행되었으며, 하은희 의과대학장, 유재두 이대목동병원장, 정성애 교무부학장, 양현종 이화의학교육센터 운영위원 등이 참석하였다. 이화의학교육센터와 의학교육학교실이 함께 주최하는 의학교육 세미나는 앞으로 매월 마지막 주 목요일 오후 4시에 열릴 예정이다. 편육범 이화의학교육센터장은 “이번 의학교육 세미나를 통해 우리대의 구성원들이 의학교육에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길 바란다”며 “앞으로 매달 열릴 의학교육 세미나에도 많은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주요 의학교육 일정

구분	워크숍	날짜 및 장소
교내	문항출제 워크숍 (임상교무부)	6.28.(화) 17:00-21:00 의학관(마곡) 301호/ PBL룸
	EMSC/CPX 문항개발 워크숍 (이화의학대학/이화의학교육센터)	9.16.(금)~17.(토) 장소 미정
	의학교육 세미나 (이화의학교육센터/의학교육학교실)	매월 마지막주 목요일 16:00 주제/장소는 별도 공지
	제1차 Health Systems Science 워크숍 (의학교육연수원)	6.3.(금) 14:00~17:00 온라인
교외	전국의대 신입교수 워크숍 (의학교육연수원)	제134차: 6.9.(목)~10.(금) 온라인
		제135차: 6.22.(수)~23.(목)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제136차: 12.1.(목)~2.(금)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제137차: 12.14.(수)~15.(목)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MERCY 연수과정 '임상추론교육' 개최 안내 (한국의학교육학회)	6.23.(목) 비앤디파트너스 (KDB생명타워 1층)
	제14차 PPT 제작과 활용 워크숍 (의학교육연수원)	7.8.(금)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구분	워크숍	날짜 및 장소
교외	제9차 교수법 워크숍 시리즈 - 6.: 모듈 강의력 향상 발생법 개최 안내 (의학교육연수원)	7.13.(수)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MERCY 연수과정 '학생평가의 주요 준거설정방법' (한국의학교육학회)	7.21.(목) 14:00~18:00 온라인
	제10차 학생 상담 워크숍 (의학교육연수원)	2022.7.26.(화)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제5차 학생을 바꾸는 자기주도학습 워크숍 (의학교육연수원)	8.5.(금) 10:00~17:00 온라인
	MERCY 연수과정 '의학교육연구 기본과정' (한국의학교육학회)	8.17.(수) 대면(장소 추후 안내)
	제3차 Blended Learning 워크숍 (의학교육연수원)	8.17.(수) 13:30~17:30 온라인
	제7차 비대면 수업 방법 워크숍 (의학교육연수원)	8.30.(화) 14:00~17:30 온라인

※ 소식지에 게재할 의과대학 가족 여러분의 글을 기다립니다. 원고분량은 A4용지 ½매 내외이며 angelica66@ewha.ac.kr 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